

번호 III-5

제 목	국문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재해 및 작업환경 실태 연구			
	영문	A survey research on calamity and work environment of small businesses			
저 자 및 소 속	국문	손두익, 박해광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영문	Doo IK, Son, Hae Kwang, Park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search Institute KOSHA			
분 야	보건관리 ( )	발 표 자	일반회원 (○) 전 공 의 ( )	발표 형식	구 연 ( ) 포스터 (○)
	역 학 ( ) 환 경 (○)				
진행 상황	연구완료(○), 연구중( ) → 완료 예정 시기 :				

1. 연구 목적

1) 일반적 목적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작업환경 실태와, 재해 및 위험물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고자 함.

2) 구체적 목적

- 제조업 및 비제조업의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재해 실태를 파악한다.
- 이들 사업장의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고 업종과 규모 등의 사업장 특성에 따른 특성을 검토한다
- 영세사업장의 건강 위해 요소를 설비 및 물질에 주목하여 파악한다.

2. 연구 방법

- 1) 5인 미만 제조업 및 비제조업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면접조사
- 2) 조사대상 및 표본추출 방법
  - 모집단: 전국 5인 미만 사업장
  - 표본규모: 사업장 3,916개(제조업 662개, 비제조업 3,254개)
  - 표본추출방법: 2단계 층화계통추출(제조업/비제조업, 지역)

### 3. 연구 결과

99년 발생 재해 실태를 통해 재해율을 추정한 결과, 제조업이 6.1, 비제조업이 8.1로, 99년 5인 이상 사업장의 재해율 0.68과 매우 뚜렷한 대조를 보였다. 물론 이것이 4일 이상의 요양 재해 모두를 포괄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세사업장의 재해율이 상당히 높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재해 형태에서는 협착 및 화상 재해가 가장 일반적인 재해로 나타나는 재해 특성을 보여주었다.

작업환경 실태에서는 8가지 항목 모두에서 매우 낮은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비제조업보다는 제조업이 일반적으로 더 환경이 열악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비제조업 내에서도 업종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데, 대표적으로 음식업에서는 상대적으로 작업환경이 더 나쁨이 보고되었다.

영세사업장 종사자의 안전관리 실태 및 안전 의식 역시 상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영세사업장의 산업재해가 앞으로 전체 재해율을 상승시킬 여지가 큼을 보여주는 것이며, 그만큼 영세사업장의 환경 개선 및 근로자 건강 보호가 절실함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4. 고찰

2000년 7월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산재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이들 사업장의 영세성과 작업환경의 열악함으로 인한 상당한 재해율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한 정확한 현황이나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 사업장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과 정책 개발이 요구된다. 이 연구는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최초의 전국조사라는 의의를 가지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실태를 정확히 보여주기에는 한계를 가진다.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